

농업전문지에서 인터뷰 전문 기자로 살아남기



 **농민신문**

황지원 기자



입사한 지 4개월이 된 2023년 4월. 선배가 하고 있던 ‘별별인생’이라는 인터뷰 코너를 함께 맡게 됐다. 기자가 되기 전부터도 소문난 ‘질문쟁이’였기에 ‘나는 인터뷰 하면 잘할 거 같아~’라고 건방진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하지만 인터뷰는 친구와 수다 떨며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것과 차원이 다른 작업이었다.

‘별별인생’의 기획 의도는 ‘농촌에서 제2의 삶을 사는 ‘유명인’의 이야기를 담는 것. 섭외 대상자를 찾는 것부터 큰 난관이었다. 다른 신문 기사나 ‘인간극장’ ‘특종세상’ 같은 TV 다큐 프로그램을 보며 열심히 대상자를 찾아다녔다. 대상자를 찾아도 승낙이라는 관문을 통과하긴 쉽지 않았다. 소속사에 연락하면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며칠을 기다리게 해놓곤, 다시 연락해보면 못 하겠다는 답이 돌아오곤 했다. 지방에 작업실을 두고 미술 활동을 하는 중년 배우는 큰 매체와는 인터뷰를 다 진행했지만 나에게는 ‘자

꾸 귀찮게 하니 불편하다’며 퇴짜를 놔다. ‘어차피 거절당하겠지’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며 섭외 전화 때마다 전화공포증이 생길 정도였다.

거절이 거듭되던 중에도 인터뷰를 응한 감사한 분들도 많다. 가뭄 속 단비, 어둠 속 한줄기 빛 같은 취재원 중 한분이 지난해 작고한 개그맨 故 전유성 선생님이다. 서울 태생이지만 전 선생님은 지방과도 각별한 연을 맺고 살았다. 2011년엔 경북 청도에 코미디 극장을 열었고, 2017년엔 전남 남원에 귀촌해 국수 가게를 운영했다. 지리산문화예술학교에서 산야초 수업을 들으며 지역 주민과도 잘 어울렸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리던 2024년 1월, 그를 만나러 남원으로 향했다. “옛날 애기는 절대 안하겠다”는 으름장을 듣고 간터라 어떤 걸 물어야 할 지 걱정도 한가득이었다. 그러나 “한겨울에 강원도 태백에서 폐광을 위한 음악회를 열려고 한다, 제



개그맨 전유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국수집 '국수교과서' 앞에서 젊은 직원과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위쪽). 지난해 책 '자주에 처음 온 사람처럼'을 출간한 전씨가 지역주민들과 소통하는 모습. 박승훈 프랜차이즈 기자, 지리산문화예술교육소

겨울 지리산 보러갔다 3개월 동안 정작 '인연의 끈' 매뉴얼 발 후 중군마을에 국수집 '국수교과서' 열어 지역주민과 교류 활발 ... 콘서트·잡담쇼 등 기획



쇼는 기발하게, 국수는 정석대로 ... 마을아, 고맙다

★ **출판 인생** ④ 귀촌한 개그맨 전유성씨 (전북 남원)

사방이 지리산으로 둘러싸인 전북 남원시 안원면 중군마을. 이곳에 개그맨 전유성씨(75)가 살고 있다. 서울 태생 전씨는 어쩌다 남원으로 귀촌하게 된 걸까?

“지리산엔 별로 기본 적 없었는데 갑자기 어떤 기발하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주변에 돌아보니 지리산은 참 아름다워요. ‘여름에 왔었다’ ‘가을이 진짜 좋다’ 이런 거예요. 겨울을 즐기는 말이 안 나오잖아 겨울에 갔죠.”

1997년 12월, 전씨는 겨울 지리산을 보러 남원으로 왔었다. 알이 다 떨어지고 말뚝은 나무를 통해 지리산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렇게 3개월 동안 남원에 살며 친구를 어찌 만들었다. 서울에 올라갈 때가 되니

문득 ‘조선시대 여기 살던 사람들은 크게 보러 연애에 어떻게 갔을까’ 궁금해서 서울까지 찾아 올랐다. 3월 12일이 됐다.

그로부터 20년 후, 전씨는 남원에 아예 정착하게 됐다. 그의 귀농로 말 나뉘게 2011년 귀촌한 카페를 운영하고 있고 오래전부터 인연을 이어온 친구들도 많았다. 재작년부터 중군마을에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수교과서’라는 국수집도 열었다. 정석대로 음식을 내놓겠다는 의미

다. 15가지가 넘는 국수를 직접 개발한 끝에 ‘소고기국수’와 ‘해물국수’를 대표 메뉴로 정했다. 그는 시간이 될 땐 개개에 나와 손님들을 반갑게 맞는다. 국수집 안은 테이블부터 의자·소품까지 전씨가 아꼈을 다니며 보아온 것들로 가득하다. 중국에서 사 왔다는 커다란 테이블을 보고 기자가 “직접 고르고 나중엔 배로 들어온 건가요?”라고 묻자, “저 정도 크기는 잘 잡아서 배에 넣고



국수교과서 내부 모습. 전씨가 세계를 여행하며 사 모은 소품들로 가득하다.

동물을 데려와 함께 살 수 있는 클래식음악회 ‘제나 소나 콘서트’를 열었다. 소파음으로 유명한 교향에서 전씨 동물을 위한 콘서트가 없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것이었다.

2011년엔 ‘지방 사람들에게도 코미디를 재밌게 보여주고 싶다’는 의미로 ‘코미디 왕가방죽’을 열어 상업을 아꼈고, 청도역 근처에도 크게 아꼈다. 코미디 왕가방죽은 관객뿐 아니라 개그맨 지방들에게도 고마운 존재였다. 전씨는 극단을 만들어 재자들을 가르치면서 숙식을 제공하고 월급까지 줬다. 기자가 전씨를 만났던 날, 청도에서 함께 공연했던 극단 재자들이 세에 인사

를 하러 남원을 찾았다. 그들은 “전유성 선생님은 개그뿐 아니라 인생의 스승”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씨의 기발한 쇼 기획은 현재진행형이다. “한겨울에 강원 태백에서 폐경을 위한 음악회를 열고 그 해 끝까지, 제복은 ‘당신’이 고맙다. 석탄이 고맙다’로 정했어요. 즐겁고 사람이 안 되고 상권잖아요. 노래는 풍경을 위한 거니까요.” 남원=박승훈 기자 support@nongmin.com

故 전유성 선생님의 전북 남원 귀촌 생활을 취재한 기사

목은 ‘광산아 고맙다, 석탄아 고맙다’로 정했다”는 꿈이 가득한 이야기를 듣고 있지 않나 인터넷에 다 나오는 과거를 묻는 게 얼마나 재미 없는지 깨달았다.

취재를 한 날, 청도에서 함께 무대를 만들어가던 젊은 배우 10여명도 은사님께 새해 인사를 하러 왔다. 제자들은 선생님에 대해 “까마득히 어린 제자와도 격의 없이 지내며 훌륭한 개그맨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으셨다”고 입을 모았다. 청도를 떠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후배들이 남원 산골까지 찾아오는 모습을 보니, 그가 어떤 선배이자 스승이

었는지 말 안해도 알 수 있었다.

그의 집 옆에 있는 국수집에서 세계여행 중 사 모은 테이블·의자·소품·향신료까지 모두 구경한 뒤 인터뷰가 끝났다. 중국에서 샀다는 테이블을 보고 “어떻게 가지고 왔나?”고 묻자 “잘 접어서 배낭에 넣고 왔지”라고 던진 농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다.

기사가 나오고 연락을 드렸다. 기사 잘 읽었다며 마지막으론 “같이 건강합시다. 또 봐요”라는 말을 남기셨다. 이듬해 건강 악화 관련 기사가 뜰 때마다 ‘연락

못난이 식재료로 맛난 음식 대방출... 농산물 가치 알리기 '솔선'

★
출발 인생 ⑤ 김대호 아나운서

MBC 입사 14년차 방송인 총평무전 '대장이 반찬' 출연 참신한 조리법 보여 양평서 자라며 부모님 농사일도 도와 한달간 떠난 남미여행... 번아웃 극복 '합든시절 배려 배운 동료들에게 감사'

직장인, 그리고 자연인, 상반된 두 수석이 모두 붙은 사람, 김대호 MBC 아나운서다. 입사 14년차인 직장이자 인생산 자락에 있는 집 마당에서 맛깔을 가꾸고 수업을 하는 그는 최근 예능 프로그램 '대장이 반찬'을 통해 시청자를 만나고 있다. 22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카페에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일요일 오후 4시50분 방송되는 '대장이 반찬'은 김 대호와 배우 이'장' 우가 농촌에서 재워 식재료를 수확한 후 못난이 농산물을 활용해 따라 하기 쉬운맛서 참신한 반찬 조리법을 알려주는 프로그램이다. 연인으로 주 아내·연인·배우(중국어 맛)를 만들고, 단감과 홍시로는 크렌치블랜드·말랭이무침·김치찌개 등을 선보였다.

"부모님이 사단을 운영하기도 했고, 지도 요려하는 걸 돕기는 편이에요. 요즘엔 배배

서 밥을 늘 사 먹었는데 프로그램 덕분에 요리하는 기쁨을 느끼고 있습니다. 양평에 농사를 짓고 달근 순두부집에는 집에 가져가서 혼자 연통을 다 비웠어요."

김씨에게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걸 프로그램 하게 된 소감을 묻자 의외의 대답이 돌아왔다.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지금 깨닫게 됐네요. '대장이 반찬'은 제가 주도적으로 좋아하는 것들을 해나간다는 점에서 소중해요. '생방송 오늘 저녁'을 7년 동안 진행하면서 늘어서 연극을 하는 모습을 해마다 보지만 이번엔 문소 경험하게 됐죠. 방송에 나오는 매뉴도 직접 아이디어를 내고요."

경기 양평에서 학창 시절을 보낸 김씨는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며 자랐다.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와 유튜브 브 방송을 통해 집 마당 뒷방에서 오아·토마토·완제소 등을 길러서 먹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농사를 지어봤으니 농산물의 소중함을 잘 알아요. 힘들게 키운 작물에 농민이 조금 있다고 배려해주는 농민들의 손길을 심히 이해해요. '대장이 반찬'을 통해서 못난이 농산물이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게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4화로 기획된 '대장이 반찬'은 이제 마지막 방송만을 앞두고 있다. 김씨는 "대장이 반찬"



이 밖에 다시 돌아와 볼나물로 만든 맛있는 반찬을 소개하고 싶다는 소망을 드러냈다. 김씨는 2011년 아나운서 오디션 프로그램

인 '신입사원'을 통해 아나운서가 됐다. 방송에 큰 용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기술을 배우려다 어머니 설득에 재수하원을 등록했고, 제대 후엔 연방 '식객'의 주인공처럼 장관을 다니다 재소 장사를 하려고 드려 면허를 냈다. 대학 4학년 때 문득 '목소리'와 외도는 나쁘지 않으니 아나운서를 해 볼까?'라는 생각이 들어 준비를 시작했다. 누군가는 '남들은 간행히 알아는 것을 너무 쉽게 얻은 게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래서일까, 그는 입사 후 사춘기를 겪어야 했다.

"3년차 때 반아웃이 왔어요. '불면제'를 진행하며 제 기존엔 캔들은 음식을 비취 샌드라고고 고발하고, 공감되지 않는 라디오 사연에 위로를 건네는 게 힘들더라고요. '신입사원'에 함께 나왔던 말라자들이 떠오르며 '내가 그들의 자리를 빼앗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결국 그는 사표를 냈다. 아나운서 국장은 그에게 '유가를 쓰고 쉬다 돌아와서 그때도 퇴사할 마음이 있다면 그만두라'고 말했다. 김씨는 '당장 내일부터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휴가를 쓰겠다'고 얘기했고 국장은 이를 허락해줬다. 그는 회사에서 가장 먼 곳인 남미로 연방간 여행을 떠났고, 쉬고 나니 다시 일할 힘이 생겼다. '회사로 돌아가는 날 선취배들을 보는 게



연간 수확 현장에서 촬영한 '대장이 반찬' 포스터

만방하더라고요. 배작지라는 기계에 윤활유를 칠하듯, 관계를 부드럽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아내가 재배한 들깨로 한 들기름을 선물로 받았죠. 프리랜서 계획이 있는 나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제가 힘들었던 시절, 회사와 동료들이 배려 배려를 갖아나갔었다는 마음이 있어요."

사직서 낸지 뒤 10년, 그는 MBC 대표 아나운서가 돼 배려 일상을 보내고 있다.

"일이 많아져서 내 일상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요즘엔 남편 곁에 있지 않고 일하는 시간이 80, 그 외 시간이 20이라면 이 20을 나를 위해 잘 써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여러 방송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것도 좋고요. 그저 일만만 느꼈던 방송이 요즘에서는 재미있었습니다. 카페나 앞에서 늘 최선을 다하는 방송인으로 남고 싶어요."

출처: 기자 support@nongmin.com

바쁜 스케줄에도 시간을 내준 김대호 아나운서

을 한번 드러볼까' 하다가도 '에이 내가 뭐라고'라는 생각에 결국 연락은 하지 못했다. 전화라도 잠깐 해볼걸. 그렇게 같이 건강하자는 말도, 또 보자는 말도 지켜지지 못했다. 취재 후일담을 풀어놓는 신문 코너에 선생님과의 인연을 풀어놓으며 혼자만의 뒤늦은 인사를 마쳤다.

다시 7개월 정도 흐른 올해 5월, 백상 예술대상을 준비하는 PD로부터 인터뷰 때 찍은 사진을 추모 VCR에 활용할 수 있느냐는 연락을 받았다. 내가 찍은 사진이 많은 관객과 시청자가 있는 큰 행사에서 선생님을 추모하는 데 쓰이다니. 선생님을

기억하는 자리에 작은 방식으로나마 함께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해부터 농촌과 관계없이 새로운 도전을 거듭해가며 사람을 다루는 '이들이 사는 세상' 코너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게 만 3년 동안 53명의 이야기를 독자에게 전달했다.

취재원이 잘되는 모습을 보면 괜스레 뿌듯해진다. '배우는 늘 선택받아야 하는 직업이라 어렵다'고 말했던 박준면씨가 흥행 드라마에 빠지지 않고, '6시 내 고향'에서 농촌을 누비던 가수 자두씨는

바람 여정 생생하게 ... “담의 가치 함께 나눠요”

★농민인생 ① 농어촌에서 제철 식재료 소중함 알리는 배우 박준민

드라마·영화는 물론 뮤지컬·가요·영화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쳐온 배우 박준민(48, 그의 매력이 농촌까지 뻗어가고 있다. 박씨는 18일 첫 방송을 시작한 tvN 예능 프로그램 ‘인내내 산지직송’에서 배우 열정과 안연진, 방송인 데스·함께 바다 마을에 머물며 제철 식재료를 수확하는 모습을 선보였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박씨를 경기 김포에 있는 소속사 사무실에서 만났다.

“인내내 산지직송”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맡은 첫 번째 임무는 경남 남해 미조항에서 명지마을을 돕는 것이었다. 바지선 위에서 선원들이 고로에 걸린 밧줄을 탈린, 박씨는 이라리의 밧줄과 나란히 밧줄을 도사리 마구나에 달



경남 남해에서 수확한 제철 토마토를 든 박준민 씨. M

을 알아보고 파마와 진료까지 받아야 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그 전엔 농업 경험해본 적도 없고, 농어민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 줄도 몰랐죠. 멀리나 단초 박을 하고 하얗는 것으로 생각했던 게 최종 해결 정도더라고요. 작업에 참여하고 난 뒤 받은 밧줄을 직접 요리해서 먹었는데 그렇게 감사하고 맛있는 수가 없었습니다.”

농작업은 힘들지만 활양을 통해 얻게 된 것이 더 많다고 박씨는 말한다. 방랑한 도시를 잠시 떠나 푸른 바다와 초록색 논밭에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니 심장이 자유로워졌음을 느낀다. 또 반찬을 나눠주는 이웃 어르신들의 정에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무엇보다 소중한 건 프로그램들 통해 만나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과 인연이었다.

“열정아빠는 영화 ‘밀수’를 함께 찍어서 이 전경호 안연진씨와 데스씨는 이번 프로그램으로 처음 만났는데 사들씩 붙어 있으면서 고생하니 금방 가까워지더라고요. 생선은 온 몸으로 뒤집어먹고 나산 다들께 먹었던 듯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활양이 없는 날에도 단 채 대방망이에서 아귀를 아나고 첫 방송은 안연진씨 집에서 모두 모여서 보았어. 앞으로 공개될 방송에선 더 친해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즘은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를 만나고 있던 박씨의 본업은 31년간 배우다. 아

를 때부터 끼가 넘쳤던 그는 고등학교 연극반에서 처음 연기를 배웠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외부기관 연극 워크숍에 참여했다가 독일인 감독이 연출한 한·독 합작 연극 ‘노부인’의 방문’에 단역으로 출연한 게 그의 데뷔작이다. 이후 ‘명성황후’ ‘브로드웨이 42번가’ ‘그리스’ 등 여러 연극·뮤지컬에 출연한 그는 2000년대 이후 드라마 ‘여왕님마님’ ‘내조의 여왕’, 영화 ‘주머니 속의 연금술사’ ‘사이보그지만 괜찮아’에서 인상적인 연기를 선보이며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혔다.

연기자·가수 이어 농민으로 변신 ‘매력’ 예능 프로그램서 다양한 농작업 펼쳐 이웃간 정 느끼고 자연에서 심신 치유 ‘농민의 수고 몸소 체험’- 감사한 마음

2014년엔 전국을 자작곡으로 채운 앨범 ‘아무도 없는 방’을 발표했다.

“30대 후반 일도 없고 정신적으로도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천하계 지내던 한 가수 선생님이 노래를 써주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작곡을 따로 배운 적은 없지만 1년 동안 곡을 써 내려 갔습니다. 연기는 대중과 감독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저를 고통스럽게 하는데, 음악엔 제만의 이야기를 오롯이 담아낼 수 있었어요.”

그렇게 나온 앨범은 여러 음악평론가의 호



드라마·영화·뮤지컬·가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펼쳐온 배우 박준민씨는 tvN 예능 프로그램 ‘인내내 산지직송’에 출연하며 농촌에서 새로운 모습을 선보이고 있다.

평을 받았고,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가 선정된 이념의 앨범에 이름을 올렸다. 음반 발매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와는 이듬해 박씨의 연을 맺었다. 2016년엔 합작 사바아비비 JTBC ‘합작’의 민혁2 우승을 차지하며 또 다른 음악적 재능을 발휘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무엇일까. “현재 방송 중인 인내내 산지직송’이 많은

시청자에게 사랑받으면서 농민·어민의 노고를 알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음엔 어느 곳으로 촬영하러 갈지 지도 도리는 상하에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옮겨올때는 새 드라마에 출연할 거 같습니다. 연기자로서의 모습도 기대해주세요.” 김포·홍지현, 사진·박준민 기자

인스타그램으로 연락했다니 흔쾌히 인터뷰에 응해준 배우 박준민씨

자연 & 사람

10 2024년 3월 20일 수요일

귀농·귀촌

농민신문

과자도 있는데 과자는 없더라고요?

★농민인생 ② 한글과자 만드는 1년차 방송인 타이리쉬

“언어 장애” ‘내향성’이 커진 ‘남자’.

8개 언어를 구사하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미국 출신 방송인 타이리쉬(35)를 수식하는 단어도, 백트루트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그는 농담에 걸려든 고향을 떠나고 다시 돌아와서 1년차 방송인으로 귀농했다. 이후 알라바마주 시카고대학교 국제학과에 진학했고, 1학년 여름방학 때 새로운 언어를 배우고 싶어 한국어로 공부하기 시작했다. 언어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가 한글과자 만드는 일을 하려는 건 단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다.

“자음과 모음을 조합해 글자를 만드는 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논쟁이요. 말을 유창하게 구사하기까지는 시간이 좀더 필요할 겁니다. 동사 동명 무조건 ‘하다’가 붙는 걸 알고 한국어 수업에서 ‘생생한’ 하고 싶어요를 ‘위’ 하고 싶어요라고 말한 적도 있었어요.”

과자씨가 인터넷에 처음 한국어로 검색해본 단어는 ‘복합어’였다. 모녀와 관련된 복합어는 수줍음의 심리를 다룬 영상이었다. 큰 충격을 받은 그는 한국 정치·사회 문제에 관심을 두게 됐다. 2011년 한국에 와 서대문대학교 언어학과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은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2014년에는 미국인 대상 토론 프로그램 JTBC ‘대결장’에

영어로 프로그램 운영 중 경품 고민하다 한글과자로 결정...계몽 없어 직접 제작

지나해 한글날 할과자 등 4종 선보여 대량생산 계획...재미있게 한국어 배우길 국산 농산물 활용 농민과도 상생 모색

담’에 출연하며 인생의 새로운 페이지를 맞게 된다.

과자씨는 방송에서 유망한 한국어 실력과 논리력을 함께한 큰 사랑을 받았다. 어느덧 1년차 방송인이 된 그는 언어인 미디어 콘텐츠와 운영, 책 저술까지 하며 빠른 하루를 보내고 있다. 특히 2023년 한글과자 모음 모임을 본단 ‘한글과자’를 세상에 내놓은 게 새로운 도전이 됐다.

“알파벳과자는 있는데 한글과자는 없어요. 글자 없는 게 이상했어요.”

과자씨는 이번 의문에서 한글과자를 만들게 됐다. 국내에서 한글과자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다는 말을 듣고 영어 프로그램 ‘스피크업 미팅(Speakup meeting)’을 기획해 운영 중이었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경



품은 줄게 고심하다 미국에서 대중적인 알파벳 모양의 과자를 떠올렸다. 그렇다면 한국인 한글과자도 만들 수 있겠다. 과자로 사업이 성공할까? 준비는 해도 없었지만, 한글과자가 있다는 외국인이 더 재미있다는 반응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서 생각해 과자 사업을 시작했다. 2014년에는 한국에 책 143권을 가져와 미국

에 보내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 만만 한국에 나다니는 애를 먹고 있다. 그는 스크립트 작업을 함께 운영한 인도 출신 방송인 나디아·그르와씨와 함께 한글과자 사업을 준비했다. 처음엔 어려웠지만 할 생각으로 과자관을 찾아 다녔지만 적합한 업체를 찾는 게 쉽지 않았다. 시작도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나디아씨는 과자를 직접 만들기로 결심했다.

“나디아·그르와씨 집 부엌에서 반죽을 빚고 과자를 구웠어요. 반죽이 틀에서 제대로 떨어지지 않아 모양이 잘가지고 하고 오븐에서 과자가 다 타버린 적도 많았죠.”

수많은 시도와 연구 끝에 결국 지난해 한글날에 맞춰 한글과자가 세상에 나왔다. 만민 사이트에 판매된 한글과자는 목표 판매량의 3배를 훌쩍 넘겨 한달 만에 판매액 180만 원을 올렸다. 한글과자는 국산 유기농 쌀로 가공한 쌀과자를 비롯해 밀가루로 만든 속·마늘·초고추 맛과자 4종이 있다. 수제로 내놓고 있어 아직 생산량은 적다. 앞으로 공장과 계약을 맺어 대량 생산을 해 나갈 계획이다.

과자씨는 경영진에게도 큰 관심을 두고 있다. 2018년부터 세계자연기금(WWF) 홍보대사를 맡으며 환경에 기여하기의 위임을 해왔다. 책 ‘두 번째 지구는 없다’를 펴내며 베스트셀러 작가도 됐다.

“농업과 기후위기는 서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예요. 이상고온 폭우·가뭄으로 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이 급등했어요. 농민과 소비자 모두 생존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는 기후위기가 농업에 미치는 위협을 사람들이 느끼지 못해 안타깝게 여긴다. 농산물이 시장에서 사라지기 오는 과정을 알리면 생산성을 깨달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피해에 농업이 농산물 공급에 무리가 없다. 소비자들도 농산물을 먹고 싶어서 농산물을 찾는 건 당연한 과정인데 이해하면 역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해 농사가 부진할 경우도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글과자를 만들면서 농민이 얼마나 힘들게 농사를 짓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국산 고추·콩·녹두 같은 농산물을 활용한 한글과자를 개발하고, 국내 농가와 직거래 해 농민과 상생을 이루는 건 계획입니다.”

홍지현 기자 support@nongmin.com

언론 최초로 한글과자를 소재로 방송인 타이리쉬와 진행한 인터뷰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 가창력을 다시금 주목받았다. MBC 퇴사 생각이 없었던 김대호 아나운서는 프리 선언 후 더욱 활발히 활동 중이고, 사업 시작 직후 만났던 타일러씨의 한글 과자는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그사이 나 역시 조금은 성장했다. 예전만큼 섭외에 큰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됐고 기사를 쓰는 것도 조금은 더 매끄러워졌다.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테다. 누군가의 삶을 깊이 파고들고, 탄 곳에선 말 못 한 이야기를 끌어내고, 그 이야기로 독자에게 울림을 주는 기자가 되고 싶다. 🍷

농민신문 황지원 기자